<h1>나 혼자만 레벨업-78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fd91ac1a3a6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78화</p>  
<p>헌터 협회 협회장실.</p>  
<p>고건희를 진찰하는 주치의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.</p>  
<p>주치의가 가슴에 대고 있던 청진기를 뗐다.</p>  
<p>"협회장님."</p>  
<p>"아냐. 말 안 해도 돼. 자네 표정만 봐도 알겠군."</p>  
<p>고건희는 풀어헤쳤던 와이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잠그며 허허 웃었다.</p>  
<p>주치의는 입을 떼지 못했다.</p>  
<p>'고건희 협회장... 이 정도면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.'</p>  
<p>그럼에도 왕성한 활동을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.</p>  
<p>오죽하면 병원에 들를 시간도 없어서 주치의를 직장으로 불러들일까?</p>  
<p>"나는 말이야."</p>  
<p>고건희 협회장이 정장 웃옷에 팔을 넣었다.</p>  
<p>"힐러들이 생기고 치유 마법이란 게 나왔을 때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, 이제 이 지긋지긋한 늙은 몸뚱이도 안녕이구나, 이렇게 생각했었지."</p>  
<p>고건희는 또 허허 웃었다.</p>  
<p>"그런데 그게 아니더군."</p>  
<p>"차도가 없었습니까?"</p>  
<p>"노환이라는 건 상급 헌터들의 치유 마법으로도 어쩔 수 없다지 뭐야."</p>  
<p>치유계열 헌터들의 마법으로 모든 병을 없앨 수 있었다면, 아마 전국의 병원이 모두 문을 닫고 의사들은 전부 다 깡통을 찼을 거다.</p>  
<p>하지만 다행인지, 불행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.</p>  
<p>재생을 돕는 것.</p>  
<p>치유 마법의 한계는 외상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까지였다.</p>  
<p>잘려 나간 팔을 기적처럼 자라게 만들 수는 있어도, 감기에 걸린 아이의 열을 내리게 만들지는 못했다.</p>  
<p>'덕분에 실업자 신세는 면했지만...'</p>  
<p>주치의는 벌써부터 나갈 준비를 하는 고건희 협회장을 바라보았다.</p>  
<p>'협회장님 같은 분은 마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완쾌시켜드려야 할 텐데.'</p>  
<p>그러나 치료 마법도, 현대 의학도 지금 단계에선 별반 소용이 없었다.</p>  
<p>할 수 있는 거라곤 조언뿐.</p>  
<p>"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. 조금이라도 쉬셔야 해요."</p>  
<p>"나도 그러고 싶지."</p>  
<p>하지만 그러면 헌터 협회가 어떻게 될 것 같나?</p>  
<p>고건희는 웃음으로 뒷말을 대신했다.</p>  
<p>'이 고건희가 없는 협회라.'</p>  
<p>대형길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시각각 몸집을 불려 나가고 있었다.</p>  
<p>그들의 힘은 이미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다.</p>  
<p>그 와중에도 협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, 협회 뒤에 있는 정부가 아니라 협회 위에 있는 고건희 덕분이었다.</p>  
<p>협회가 힘을 잃는 순간 헌터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된다.</p>  
<p>'아직은... 아직은 안 돼.'</p>  
<p>아직 은퇴는 이르다.</p>  
<p>지금 협회는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목줄이었다.</p>  
<p>아무런 대안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.</p>  
<p>'협회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 주려면 내가 있어야 한다.'</p>  
<p>S급 위의 S급.</p>  
<p>고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필요했다.</p>  
<p>그때까지 어떻게든...</p>  
<p>"으음!"</p>  
<p>고건희가 고통스런 신음을 흘렸다. 가슴을 움켜쥔 손에 말끔했던 와이셔츠가 구겨졌다.</p>  
<p>"협회장님, 여기..."</p>  
<p>주치의는 말없이 진통제와 물을 준비해 왔다.</p>  
<p>"고맙네."</p>  
<p>진통제가 들어가니 겨우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'응?'</p>  
<p>전화에서 신호가 울렸다.</p>  
<p>주치의가 있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을 말라고 일러 놨거늘.</p>  
<p>고건희가 눈살을 찌푸리며 수화기를 들어올렸다.</p>  
<p>"지금 진찰 중이네."</p>  
<p>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.</p>  
<p>-죄송합니다. 협회장님. 너무 급한 소식이라.</p>  
<p>"또 일본에서 연락이 왔나?"</p>  
<p>-연락은 왔었지만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.</p>  
<p>순간 고건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.</p>  
<p>'제주도 개미 놈들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다고?'</p>  
<p>대체 무슨 일일까?</p>  
<p>"무슨 일인데 그래?"</p>  
<p>고건희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, 비서가 아슬아슬하게 대답했다.</p>  
<p>-심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</p>  
<p>"심사과에서?"</p>  
<p>심사과가 하는 일이란 게이트나 각성자의 등급을 매기는 게 전부다. 딱히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부서가 아니었다.</p>  
<p>'아니면 혹시...'</p>  
<p>또 게이트 측정 오류라도 냈나?</p>  
<p>얼마 전 백호 길드와 빚었던 마찰을 떠올리며 고건희는 미간을 구겼다.</p>  
<p>그러나 불쾌함도 잠시.</p>  
<p>비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고건희가 예상하던 '문제'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.</p>  
<p>-방금 심사과에서... 측정불가 등급의 각성자가 나왔다고 합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"헌터협회 고건희 회장님?"</p>  
<p>방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?</p>  
<p>진우는 귀를 의심했다.</p>  
<p>대한민국 최고의 헌터라 불리는 사람이 나 하나를 만나자고 이 시간에 병원까지 쫓아 왔다고?</p>  
<p>'말도 안 되는 소리...'</p>  
<p>진우가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우진철이 뒤쪽을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다.</p>  
<p>"여기 협회장님이 와 계십니다."</p>  
<p>대답을 기다리는 우진철의 초조한 눈빛.</p>  
<p>농담이 오고 갈 분위기는 아니었다.</p>  
<p>'...정말인 거 같네.'</p>  
<p>어째서 고건희 같은 사람이 날 찾는 걸까?</p>  
<p>진우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.</p>  
<p>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등급 재심사의 결과 때문인데...</p>  
<p>'협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?'</p>  
<p>하지만 협회는 비영리 단체다.</p>  
<p>헌터 하나를 데려오겠다고 협회장이 감시과 직원을 대동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.</p>  
<p>심지어 자신은 아직 재측정도 끝나지 않은 상태.</p>  
<p>생각하면 할수록 협회장의 의중이 궁금해졌다.</p>  
<p>"좋습니다."</p>  
<p>진우가 수락했다.</p>  
<p>우진철은 방금 전의 긴장감이 무색할 정도로 금세 환한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"감사합니다!"</p>  
<p>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나왔다.</p>  
<p>'저 무뚝뚝해 보이는 아저씨가 이런 표정도 지을 수 있구나.'</p>  
<p>진우는 신기해하며 우진철의 뒤를 따라갔다.</p>  
<p>모퉁이를 돌아서자 딱딱한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 한 사람을 볼 수 있었다.</p>  
<p>'저 사람이...'</p>  
<p>진우가 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천외천.</p>  
<p>하늘 위의 하늘이라 불리는 S급의 고건희 헌터.</p>  
<p>스윽.</p>  
<p>진우를 발견한 고건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?"</p>  
<p>80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풍채가 대단한 노인이었다. 은퇴한 레슬러나 씨름선수를 연상시키는 덩치였다.</p>  
<p>그러나 고압적인 태도는 전혀 없었다.</p>  
<p>'의외네?'</p>  
<p>풍모로 보나, 위치로 보나 잔뜩 무게를 잡을 줄 알았는데, 오히려 그보다 그의 옆에 있는 수행원이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.</p>  
<p>"제가 성진우입니다."</p>  
<p>진우가 대답했다.</p>  
<p>고건희는 환한 얼굴로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.</p>  
<p>"반갑습니다. 고건희입니다."</p>  
<p>두 사람은 짧은 악수를 나누었다.</p>  
<p>고건희는 미리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배치를 바꿔놓은 대기실 의자를 가리켰다.</p>  
<p>"앉아서 이야기하시죠."</p>  
<p>"감사합니다."</p>  
<p>진우가 먼저 앉고 나서 고건희도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다.</p>  
<p>문득 진우의 시선에 고건희의 양복 깃에 붙어 있는 금배지가 들어왔다.</p>  
<p>현직 국회의원인 동시에 헌터 협회 협회장인 남자.</p>  
<p>'거기에 S급 각성자.'</p>  
<p>고건희는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.</p>  
<p>정재계의 인사들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의 거물들까지.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인물들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.</p>  
<p>그래서 더 궁금했다.</p>  
<p>왜 고건희 같은 사람이 이리 급하게 자신을 찾아왔는지.</p>  
<p>그러고 보니.</p>  
<p>'최종인 다음은 고건희인가?'</p>  
<p>오늘 하루 최고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두 사람을 연이어 만났다.</p>  
<p>아직 S급이라고 확정 난 것도 아닌데 말이다.</p>  
<p>마침 고건희가 말을 꺼냈다.</p>  
<p>"S급 헌터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갸웃했다.</p>  
<p>"아직 재측정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."</p>  
<p>그러자 고건희가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사실 재측정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."</p>  
<p>"예?"</p>  
<p>의아스런 표정의 진우에게 고건희가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다.</p>  
<p>"정밀 측정기는 측정 결과를 세분화시켜 주는 기계지. 측정 범위 이상을 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."</p>  
<p>"그럼 어째서..."</p>  
<p>"재측정이라는 절차를 만들었냐는 말씀이시지요?"</p>  
<p>그 말이 맞았다.</p>  
<p>어차피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면 왜 번거롭게 일을 더 늘리는 걸까?</p>  
<p>고건희의 답은 명쾌했다.</p>  
<p>"유예기간입니다."</p>  
<p>'유예기간...?'</p>  
<p>진우가 묻기도 전에, 고건희가 쑥스러운 듯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저희가 성진우 헌터님 같은 분들을 먼저 만나기 위해 벌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지요."</p>  
<p>아-</p>  
<p>진우는 협회장이 하고자 하는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.</p>  
<p>"아시다시피 협회에는 규모와 달리 우진철 과장님같이 뛰어난 헌터분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."</p>  
<p>대형길드 때문이다.</p>  
<p>"대형길드들이 있으니까요."</p>  
<p>역시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대형길드에 가면 수입과 명성이 보장되는데 누가 협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?"</p>  
<p>협회 헌터들의 수입도 적지 않다.</p>  
<p>하지만 그들이 대형길드에서 벌 수 있는 돈에 비한다면 그건 정말로 푼돈에 불과했다.</p>  
<p>인기도 마찬가지.</p>  
<p>"대형길드의 정예 공격대 멤버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는 사람은 있어도, 우리 우진철 과장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지요."</p>  
<p>정예 멤버라는 말에 진우는 A급 헌터였던 김철을 떠올렸다.</p>  
<p>감각 스탯은 상대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.</p>  
<p>진우가 판단하기에는 김철보다는 우진철의 실력이 확실히 한 수 위였다.</p>  
<p>'같은 A급이지만 실력은 다르다.'</p>  
<p>진우가 우진철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우진철은 협회장의 칭찬과 진우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'하지만...'</p>  
<p>김철이 문제없이 헌터로 데뷔했다면 우진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훨씬 더 유명해졌을 것이다.</p>  
<p>그게 협회 소속 헌터와 길드 소속 헌터의 차이점이었다.</p>  
<p>"그래서 저희는 정말 뛰어난 각성자분들이 협회를 방문했을 때를 대비해 작은 꼼수 하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."</p>  
<p>그게 재측정이란 말인가?</p>  
<p>'하긴...'</p>  
<p>측정 결과가 공표되고 여기저기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면 협회가 이렇게 대놓고 접근할 수 있었을까?</p>  
<p>설득력 있는 방법이었다.</p>  
<p>"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."</p>  
<p>어느덧 협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.</p>  
<p>"저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약속드릴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."</p>  
<p>가슴께를 만지작거리던 고건희가 뭔가를 움켜쥔 주먹을 앞으로 내밀었다.</p>  
<p>"다른 길을 도울 수는 있지요."</p>  
<p>"무슨 말씀이신지...?"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을 다른 쪽으로 키워 드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."</p>  
<p>움켜쥔 주먹이 펴졌다.</p>  
<p>고건희의 손바닥 위에서는 금배지가 반짝이고 있었다.</p>  
<p>'권력... 인가?'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의아하다는 시선을 보냈다.</p>  
<p>"영문을 모르겠군요."</p>  
<p>"예?"</p>  
<p>"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?"</p>  
<p>타당한 질문.</p>  
<p>진우를 바라보는 고건희의 눈빛에 이채가 어렸다.</p>  
<p>'내 배경에 겁먹거나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의문점을 제기하다니...'</p>  
<p>내가 너무 서둘렀나?</p>  
<p>누가 그랬던가.</p>  
<p>'늙으면 인내심이 줄어든다고.'</p>  
<p>틀린 말이 아니었다.</p>  
<p>고건희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.</p>  
<p>"5대 길드를 알고 계시겠지요?"</p>  
<p>어찌 모를 수 있을까?</p>  
<p>진우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지금 대한민국에는 다섯 마리의 공룡이 간신히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."</p>  
<p>수도권의 헌터스, 백호, 사신.</p>  
<p>지방의 명성, 기사단.</p>  
<p>"헌터님께서 다섯 개의 길드 중 어디에 들어가도 균형이 깨지고 판도가 크게 뒤바뀔 겁니다."</p>  
<p>지금도 대형길드들의 위세는 하늘을 찌른다.</p>  
<p>그런데 그중 어느 한 곳이 또 한 명의 S급 헌터를 얻고 그걸 원동력 삼아 위로 치고 올라온다면?</p>  
<p>그때도 협회의 말이 먹힐까?</p>  
<p>협회는 강한 힘으로 헌터들 간의 중심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해야 했다.</p>  
<p>"법과 제도, 평범한 공권력으로는 헌터들을 묶어 두기에 역부족입니다."</p>  
<p>진우도 일전에 같은 생각을 했었다.</p>  
<p>마수들만이 괴물이 아니다.</p>  
<p>헌터들 또한 마수들 못지않은 괴물들이다.</p>  
<p>'힘'만을 따진다면 마수들보다 더 위험한 괴물들이 바로 헌터들이었다.</p>  
<p>"그래서 협회가 필요한 겁니다."</p>  
<p>고건희의 얼굴이 사뭇 진지해졌다.</p>  
<p>"그리고 협회는 성진우 헌터님을 필요로 합니다."</p>  
<p>당신과 같은 강한 힘을 지닌 사람이.</p>  
<p>고건희의 눈빛이 예리해졌다.</p>  
<p>'옆에 두고 어느 정도 지켜보긴 해야겠지만...'</p>  
<p>성진우만 OK한다면 그를 전심전력으로 밀어줄 의사가 있었다.</p>  
<p>S급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들이니까.</p>  
<p>'이 정도면 설명이 됐겠지.'</p>  
<p>그러니.</p>  
<p>아주 오랜만에, 고건희는 긴장과 설렘이 반반쯤 섞인 심정을 맛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.</p>  
<p>"어떻게 하시겠습니까, 헌터님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